# 금속노조통신 71호

■발행일 : 2018년 7월 20일(금) ■발행인 : 김호규 ■발행처 : 노조산전홍보실 ■스마트폰 m.ilabor.org / ■전화 : 02-2670-9507


# 문재인-김경수, 약속 어기고 정리해고 칼춤 준비하나

## 18일 금속노조 영남권 총파업대회… "성동조선 정리해고 중단, 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금속노조 영남권 조합원들이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중단과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불볕더위에 불구하고 경남 창원에 모였다.

노조가 7월 18일 경남 창원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성동조선 불법 정리해고 계획 철회,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정 이행 촉구 2018년 투쟁 승리 금속노조 영남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영남권 조합원 4,000여 명이 집결해 무분별한 조선업 구조조정 중단과 한국 법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산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감히 하지 못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문재인 정권은 성동조선에서 저지르려 한다. 문재인 정권이 전면에 나서 노동자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강기성 성동조선지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강기성 지회장은 경남도청 앞 농성장에서 14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현재 법정관리 중이다. 법정관리인은 성동조선의 원활한 인수합병 추진을 위해 생산직 147명만 남기고 남은 인력을 모두 정리해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00여 명 이상의 조합원이 현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강기성 지회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성동조선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당선 후 언론에 성동조선을 책임진다고 한 적 없다며 우리를 우롱했다"라며 "국회의원 시절은 당사자가 아니었으니 모르지만 이제 김경수 도지사가 이해당사이며 의지와 실력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환 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맞서 13년째 투쟁 중이다. 원청은 시간만 끌고 벌금으로 대신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3년이 지나는데 2심 판결도 안 나왔다. 정부, 법원, 자본 등 권력자들은 자기 이익엔 속도전, 노동자 문제엔 연장전을 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7월 3일까지 직접고용 이행하라고 했지만, 원청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직접고용 대신 벌금 77억 원을 물겠다고 버티고 있다.

조합원들은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무리하고 경남도청 앞까지 행진했다.

# "모든 삼성 노동자, 민주노조에서 만나자"

## 노조 삼성그룹 지회 직접고용 결의대회… "삼성과 노조파괴 공범 , 엄정 수사로 뿌리 뽑아야"

삼성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삼성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조합원들은 삼성을 압박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하자고 결의했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 등 노동조합들이 7월 14일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재벌 적폐 청산, 단체협약 체결, 직접고용 합의이행 삼성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1,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서초동 삼성본관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나두식 지회장은 "직접고용은 첫 번째 문이다. 노동조합을 든든한 울타리로 만들겠다. 노조 없는 직접고용은 삼성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라며 "오늘 온 조합원의 두 배를 만들어 이곳에 다시 오면, 우리가 원하는 직고용화를 할 수 있다. 조직화를 조합 활동의 중심에 두겠다"라고 약속했다.

노조는 삼성본관 앞 결의대회에 앞서 '정경유착 박살, 국가기관 노조파괴 철저 조사, 책임자처벌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삼성과 국가기관의 정경유착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지부, 2018 임단투 승리 4시간 총파업

## 18일 총파업. 대창·인지컨트롤스지회 투쟁 지지·엄호… "경기지부, 마지막 임단투 지회와 함께 간다"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4시간 총파업을 벌였다.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파업을 벌이고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인지컨트롤스 자본과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대창 자본에 경고했다.

노조 경기지부는 7월 18일 경기도 시흥시 인지컨트롤스 본사 앞에서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는 총파업대회에 앞서 대창지회 앞에서 사전결의대회를 하고 인지컨트롤스 공장 앞까지 행진했다.

대창 앞 사전결의대회에서 이기만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자본은 용역 깡패를 고용해 물리적 폭력으로 노조를 깨던 방식이 실패하자, 노무사를 고용해 끊임없는 도발로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기만 지부 수석은 "대창 자본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인지컨트롤스 자본은 복수노조를 통해 금속노조를 괴롭히고"라며 "오늘 파업 투쟁은 인지컨트롤스지회와 대창 지회 상황을 함께 돌파하는 투쟁이다. 무덥지만 당당하게 투쟁하자"라고 호소했다.

지부는 인지컨트롤스 노동자들이 퇴근하는 17시 30분에 맞춰 총파업대회를 준비했으나 인지 자본은 노동자들의 참가를 막기 위해 퇴근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겼다.

정구양 노조 경기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경기지부는 최저임금 꼼수에 맞서 투쟁하는 소수노조 사업장인 인지컨트롤스지회와 임금교섭 타결 의지가 없는 대창 자본에 맞서 싸우고 있는 대창조합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총파업대회 의의를 설명했다. 정구양 지부장은 "경기지부는 마지막 지회가 임단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모두 함께 싸울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이재송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계열사 수십 개를 거느리고 연매출 5,400억 원인 인지 자본은 최저임금 7,530원을 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재송 지회장은 "오늘 모인 금속노조 경기지부 1,500 대오가 큰 힘이 된다. 가열차게 투쟁해서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경기지부 총단결로 임단투 승리하자'라고 결의하고, 파업가를 부르며 총파업대회를 마무리했다.

인지컨트롤스 자본은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자 부족한 기본급을 '임시수당'으로 지급하는 꼼수를 부렸다. '임시수당'이란 최저임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급한 후 임금협상 결과 최저임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임금에서 다시 빼는 꼼수다. 소수노조인 인지컨트롤스지회는 자본의 부당한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삭감 꼼수에 맞서 96일째 투쟁하고 있다.

# 70년대 노동조건 종로 귀금속 세공노동자들, 노조 가입

## 근기법·산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고소·고발… "노동존중 사회, 악질 사업주 처벌부터"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을 세공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세공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악질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며 투쟁에 나섰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종로세공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준)은 7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종로 귀금속 악질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와 권리찾기사업단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자 탄압 악질 사업주 즉각 처벌 ▲종로귀금속 근로감독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노조와 권리찾기사업단은 불법행위가 도를 넘은 사업장 대표를 ▲연장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가입 시 허위 신고 ▲취업규칙 미비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시행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미시행 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또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막말과 따돌림, 차별, 퇴사 협박 등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세공노동자들은 귀금속 가공을 위해 사용하는 청산카리와 황산 등 1급 발암물질 화공약품에 노출돼 있지만, 사업주들은 산안법상 의무 사항인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보호장비조차 주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노동존중 사회는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악질 사업주 처벌에서 시작한다"라고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